

나주시, 내년 'Non-GMO 유채유' 학교급식 공급

알곡영농조합법인·(주)땅끝두레와 업무 협약 체결 미래세대 건강한 먹거리 공급, 농가 소득 안정 도모

나주시가 미래세대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내년부터 'Non-GMO 유채유'를 학교급식에 공급한다.

나주시는 28일 유채 생산자단체인 알곡영농조합법인(대표 최정웅), 가공업체인 (주)땅끝두레(대표 윤영석)와 "학교급식 Non-GMO 유채유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Non-GMO 유채유의 학교급식 공급과 농가 계약재배를 통한 소득보장 등 지속가능한 유채유 공급체계(생산-가공-유통)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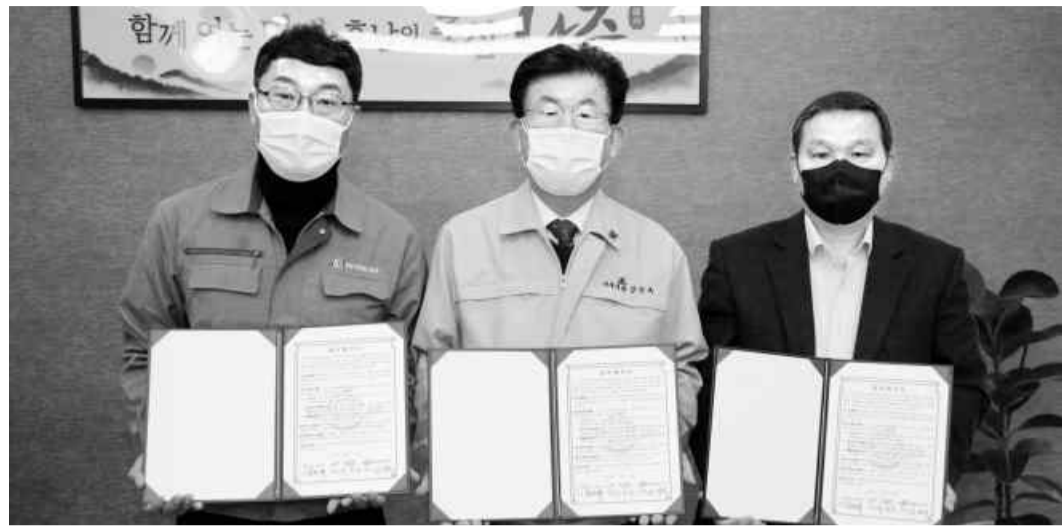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GMO 농산물은 콩(대두유), 옥수수, 사탕무 등이 있다.

이와 반대인 NON-GMO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즉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일컫는다. 시는 GMO 비중이 높은 대두유 대신 Non-GMO 유채유를 대체품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유채 생력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수매비를 지원했다.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유채는 유채유로 가공해 관내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김광수 박사에 따르면 국내산 유채유는 발연점이 높아 튀김·부침 등 조리유에 적합하고 드레싱 용도까지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 식용유에 비해 오메가 성분 함량이 높아 성장기 학생의 영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에는 유채 계약재배 수량을 60톤까지 확대하고 유채 집단화 단지(20ha)



지난 28일 최정웅 알곡영농조합법인 대표, 강인규 나주시장, 윤영석 (주)땅끝두레 대표(왼쪽부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를 조성, Non-GMO 유채유의 안정적 공급기반과 유채꽃의 관광자원화 등 경관농업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한 먹거리가 지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son@kwangju.co.kr

'새콤달콤 영양 가득' 강진산 명품 딸기 본격 출하



천혜의 환경을 갖춘 강진군에서 제철을 맞은 당도 높고 영양 가득한 딸기 수확이 한창이다.

<사진> 수확한 딸기 대부분은 목포원에농협공판장과 광주원에농협공판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딸기 값은 29일 현재 1kg당 2만4000원에서 3만 원 선에 거래된다.

강진은 다른 지역보다 겨울철 평균기온이 2도 이상 높고 출하 시기 일조시간도 20시간이 많은 지리적 장점으로 당도, 향, 빛깔이 뛰어난 고품질 딸기가 생산되고 있다.

88농가가 약 32.6ha의 면적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딸기 재배농가 박성철씨는 "강진군 딸기는 타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도 수출됐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 탐진호 명칭 '장흥호'로 바뀐다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생활용수 공급원인 장흥담 탐진호 명칭이 '장흥호'로 바뀐다.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남도 지명위원회가 지난 2005년 6월 고시된 '탐진호'를 장흥담과 연계한 지역 상징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저수지 명칭 정비 지침 근거에 의거 '장흥호'로 변경해야 한다고 심의 의결했다.

이에 앞서 장흥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 등이 장흥담 수역 면적이 장흥군 유지면과 부산면 일원으로 지역 상징성을 살려야 한다고 탐진호는 마땅히 장흥호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광주일보 2021년 4월 30일자 12면 보도)며 지난 4월 20일 장흥군의회 백광철의원 제안으로 장흥군 지명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전남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으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절차만 거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탐진호는 장흥호로 바뀔 예정이다.

한편 장흥담은 높이 53m, 길이 403m로 193km의 유역면적에 1억9000만톤의 저수량을 확보하는 다목적댐이다.

전국 22개 담 가운데 해당 지자체 지명 상징을 살려 담 이름을 고시하는 곳은 강원도 춘천호를 비롯해 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음식문화 개선사업 '6년 연속 우수기관'

전남도 22개 시군 대상 평가

함평군이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업무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전남도는 매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추진체계 구축,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등 관련 지표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함평군은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위생관리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군은 지역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청결운동과 더불어 개인위생·주방관리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은 물론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실시·음식점 위생 관리를 강화했다.

또 외식업합평군지부와 함께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업장 청결운동을 비롯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안전관리 강화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감염병 예방활동 등을 병행 실시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상의 함평군은 "안전하고 청결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내 음식점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숲체원, 진로체험 활성화 최우수기관 선정

'임(林)과 함께 탄탄대로' 호응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장성숲체원(원장 박동희)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진로체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 평가에서 국립장성숲체원은 장성교육지원청, 장성진로체험지원센터, 자연과 사랑남도숲(산림복지전문업), 별내리마을(산촌생태마을)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을 펼쳐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올해 개발된 '임(林)과 함께 탄탄대로' 회기형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의 가치 이해와 산림복지전문가 가상 역할을 동시에 담아 청소년 3000여명에게 심층적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장성숲체원의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

박동희 국립장성숲체원장은 "청소년이 자연속에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써준 것이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진로체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해맞이 명소 만연산

수만리·동구리 주차장 폐쇄

화순군이 31일과 1월1일 이틀 동안 해맞이 명소인 수만리·동구리 주차장을 일시 폐쇄한다.

화순군은 새해 해맞이 탐방객의 출입을 막기 위해 31일 오후 6시부터 1월1일 오전 7시까지 만연산 일대 수만리·동구리 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년 1월8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일시 멈춤' 기간에 맞춰 시행된다.

폐쇄장소는 만연산 일대 수만리 1주차장(큰재), 2주차장(생태숲 습지원), 3주차장(전망데크)과 동구리 호수공원-만연산 인근 1주차장(만연산주차장), 2주차장(동구리주차장)이다.

만연산 일부 국립공원 지역의 탐방로도 폐쇄된다.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1월 1일 오전 7시까지, 1월 1일 오후 3시부터 1월 2일 오전 7시까지 2차례에 걸쳐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니 해맞이를 계획 중인 주민들은 유의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해맞이 행사의 전면 취소 후 13개 읍면에 이동제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고 강한 만큼 주민과 등산객들은 폐쇄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